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복지부, '암 관리법' 제정 공포

암의 예방이나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암 관리법이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 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해 관련계획이나 정책을 심의하게 됐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 사업이나 암 등록 통계사업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말기 암 환자 관리사업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 내에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암 관리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암 관리법은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02년 10월 국회에 제출돼 올해 4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선일보 2003. 5. 27)

담배값 내년부터 3천원 이상으로 인상

이르면 내년 중 담배 가격이 1갑 평균 3,0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담배를 면세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 규정도 개정된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담배 가격을 선진국 담배 가격의 평균 3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규제 기본협약'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국내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담배 가격을 1갑당 평균 3,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WHO 총회 논의사항을 설명하는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갑당 1,500~2,500원 수준인 국내 담배 가격은 1갑당 8,000~1만원 수준인 미국·영국 등 선진국 담배 가격의 20~25% 수준"이라며 "WHO 총회에서도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담배값을 선진국 담배값의 30%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담배에 붙는 세금 및 건강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담배 가격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KT&G(옛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담배 가격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정부가 세금과 건강부담금을 올리면 담배 가격은 그만큼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WHO 총회에서 채택된 '담배 규제 기본협약'에도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과 세금 정책을 써라'는 내용이 있다"며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배가 비싸 못 피운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담배 가격 인상안 및 담배 면세 판매 금지안과 함께 향후 5년 안에 담배 관련 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3년 안에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크기를 표면적의 30%(현재 20%)로 확대하고 폐암 사진 등의 그림을 넣으며 담배 이름에 'light' 나 'mild' 같이 순한 담배라는 인상을 주는 단어를 넣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규정을 개정, 이르면 내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WHO가 채택한 '담배 규제 기본협약'은 40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쳐야 발효되며, 그 절차에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2003. 5. 23)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보건원은 지난 20일 부산에서 채집한 모기 35마리 중 2마리(5.7%)가 일본뇌염 모기로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원은 이달 들어 전국 10개 지역에서 매주 2차례 모기를 잡아 일본뇌염 모기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관찰해왔다.

올해에는 건조한 날씨로 작년보다 3주 가량 늦게 일본뇌염 모기가 발견됐다고 보건원은 덧붙였다.

보건원은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생후 12~24개월 2회, 2차 접종 1년 뒤 1회 등 3차례의 기본예방접종에 이어 만 6세, 12세 때 각각 추가 접종을 하고, 주변의 가축사육장과 물웅덩이 등을 철저히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원은 앞으로 일본뇌염 모기 밀도가 50%을 넘어 서거나 매개 모기 체내에서 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면 주의보를 경보로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7~20일 이후 두통, 발열, 구토, 설사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고열, 혼수, 마비 등으로 진행되며 치사율은 5~10% 정도다.

심하게 앓고 나면 생명을 건져도 환자의 20~30%에서 언어장애, 판단능력 저하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건원은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1명, 지난해 6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조선일보 2003. 5. 23)

황제 다이어트, 오래 하면 효과 떨어져

탄수화물 섭취량만 줄이고 지방 섭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이른바 '황제 다이어트(애트킨스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된 두 건의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신시내티대학 메디컬 센터의 프레더릭 사마하 박사는 연구팀은 비만인 사람 79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황제 다이어트'와 저지방 식사를 각각 준 결과 황제 다이어트 그룹은 체중이 평균 5kg 줄어든데 비해 저지방 식사 그룹은 2kg 밖에 줄지 않았다.

한편 펜실베이니아대학 의과대학의 개리 포스터 박사는 또 다른 연구에서 63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황제 다이어트'와 저지방 식사 중 하나를 택해 1년 동안 계속하게 한 결과 6개월 후 '황제 다이어트' 그룹은 체중이 평균 7kg, 저지방 다이어트그룹은 3kg 각각 줄었다.

그러나 1년 후 체중 감소폭은 탄수화물을 줄인 황제 다이어트 그룹이 4kg, 저지방 식사 그룹이 2.5kg으로 크게 좁혀졌다.

'황제 다이어트'는 1972년 뉴욕의 의사 로버트 애트킨스가 '애트킨스 다이어트혁명'이란 책을 펴내면서 크게 유행한 식사요법으로 핵심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식사요법은 지방의 과다섭취로 심장병, 신장질환, 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터 박사의 실험에서는 '황제 다이어트' 그룹이 저지방 식사 그룹에 비해 트리글리세리드(중성지방)의 혈중농도가 더 낮아진 반면 양성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은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2003. 5. 22)

C형 간염에도 흡연은 독(毒)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금연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제학술잡지인 거트(Gut)는 최근 프랑스 파리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 흡연이 간 조직을 파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주가 특히 만성 C형 간염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파리대학 연구진이 2백44명의 만성 C형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흡연 정도와 간 조직의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결과다.

간 조직 파괴현상은 비흡연자의 경우 59%에서 나타났으나 매일 한 갑씩 20년 동안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86%가 이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담배와 술을 같이 할 경우 간 조직 손상은 훨씬 심해졌다.

50세 이상 연령으로 하루 15개비 이상 담배를 피운 C형 간염 환자가 하루 20g 이상의 알코올을 술로 마실 경우(소주 2~3잔 정도) 술, 담배를 일절 하지 않는 C형 간염 환자에 비해 간 조직이 5.4배나 손상됐다는 것.

간 조직이 많이 손상될수록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담배가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흡연 시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온 니코틴 등 담배의 유해물질이 간세포도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방광암 등 담배연기와 무관해 보이는 부위에도 혈액을 통해 흘러 들어간 담배 부산물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염하면 술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로 인해 앞으로 담배를 끊는 것도 간염 환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으로 추가됐다.

(중앙일보 2003. 5. 19) 